

거창 쌀다리 · 장승백이다리와 안성 유다리



쌀다리

거창은 예로부터 크게 일어날 밝은 곳, 넓은 벌판, 즉 넓고 큰 밝은 들이란 뜻에서 거열(居烈), 거타(居陀), 아림(娥林)으로 불리었다. 신라 경덕왕 16년(757년)에 거창(居昌)이라는 이름을 처음 얻은 후 주변 영역과 분할·합병되면서 다시 여러 지명으로 불리다가 오늘에 이르고 있다.

기백산(1,331m)과 금원산(1,353m)은 거창군과 함양군의 경계이다. 기백산은 마리면, 위천면과 함양군 안의면에 걸쳐 있는 덕유산의 가지이다. 옛 이름은 지우산(智雨山)이며 마치 술을 빚는 누룩더미 같이 생긴 바위들이 여러 층탑을 쌓아올린 듯한 봉우리를 갖고 있어 '누룩더미'라고도 부르는 산이다. 산 이름은 이십팔술 별자리의 하나인 기(箕)와 인연을 갖고 있다. 음양 가운데 양(陽)인 남성적인 산으로 보아 흰 것을 상징한 학(鶴)을 불러 산 아래 마을 이름을 고학으로 짓고 산은 백(白)자를 써 기백(箕白)이다. 반면, 같은 줄기 위에 솟은 금원산(金猿山)은 음(陰)인 여성적인 산으로 보아 '검다'는 것을 비유한 동물 원숭이를 산 이름으로 삼아 금원(金猿)이다. 따라서, 옛 안의 삼동 중의 하나인 원학동(猿鶴洞)이 금원산의 원(猿)자와 기백산의 백(白)자를 상징한 학(鶴)자를 써 만들어진 마을명이다.

기백산은 거창의 서벽이다. 산 기슭 남쪽

에 원추리와 싸리나무가 군락을 이루는 기백평전이 펼쳐져 있으며, 지우샘이 솟아 맞은편 황석산과 수망령에서 시작한 물줄기와 합하여 안의 지우천을 이룬다. 지우천이 흐르는 장수동은 옛 안의 삼동 강운데 하나인 심진동으로, 지금은 용추사 계곡으로 더 알려져 있다.

기백산 안봉에서 시작한 물줄기는 고학천을 이룬다. 이 내는 진주를 중심으로 한 남도 사람들이 한양 나들이를 할 때 꼭 건너야 하던 곳이었다. 특히, 청운의 뜻을 품은 선비의 과거 길로 과거장에서 나들목과 장승백이다리를 건너왔는지를 물을 만큼 중요한 길목이었다. 지금은 새로운 마을의 형성과 진주에서 김천을 잇는 국도와 대진고속도로가 나 있어 그 길의 모습은 없어졌으나 군데군데 옛 모습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쌀 천섬을 들여 만든 '쌀다리'

함양 안서 3번 국도로 이어지는 마리면 면 소재지 근처 변함마을 입구에는 오구화(吳九華) 수(守) 선생을 기려 만든 용원정이 있는데 이를 건널 수 있는 옛 돌다리가 있으니 나들목이라 하는 쌀다리이다. 이 다리는 오가는 길손들의 불편함을 보다 못한 이 마을의 오수선생 후손인 오성재, 오성화 형제가 쌀천섬을 들여 인부를 사서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다리 위에 걸친 나무줄기를 보호하기 위해 상판에 쇠파이프를 세워 눈에 거슬린다.

1758년 가설한 이 다리는 길이 11m, 폭 1.2m, 높이 2m이며 개천 중간에 교각을 세우고 양쪽에는 석축을 쌓아 길이 5.5m, 두께 35cm나 되는 상판 두 장을 얹어 만들었다. 근처에는 이를 만든 두 형제의 공덕을 기리는 시혜불망비와 공덕비가 세워져 있다.

큰 바위들이 있는 계곡은 주변에 우람한 나무들과 어울려 지나는 나그네의 쉼터로는 안성마춤이다. 기백산에서 흐르기 시작한 용폭으로부터 이름 지어진 용원정이 지금은 길이 막혀 다만 기념물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나들목이라 칭할 만큼 중요한 길목이었다.

삼남대로를 잇던 장승백이다리

이 곳에서 약 2km 떨어진 말흘리 들판 모퉁이에도 장승백이라는 돌다리가 있다. 어린 시절 물놀이를 하였던 중년 농부의 경험담에 의하면 제법 물이 깊었던 모양이다. 길이 4.5m, 높이 2m의 장승백이다리는 교대가 특별하다. 자연석인 큰 바위를 한쪽 교대로 사용하고 한쪽은 석축을 쌓아 그 위에 두께 35~40cm가 되는 자연석을 상판으로 얹어 만들었다.

바로 옆에는 19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만들어진 시멘트 다리가 난간에 부서진 채 설치되어 있다. 시멘트 다리 공사 때 장승백이다리를 철거하려 하였으나 동네 어른들의

지혜로 그 모습을 남기게 되었다고 한다. 돌다리 주변에는 주막과 큰 장승이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부산과 김천으로 이어지는 전용 도로 공사로 지형이 바뀌어 장승도 주막 자리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다만 삼남대로를 잇는 이 길에는 유난히 열녀비나 효부비가 많이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 수신제가(修身齊家) 후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를 가르치던 옛 어른들의 전통이 삼남대로를 통해 오가는 많은 나그네들에게 교훈하고자 한 생각을 짐작케 한다.

‘못생긴 돌다리’ 안성 유다리

안성하면 우리는 먼저 ‘안성마춤’을 떠올리게 된다. 안성은 예로부터 생활 유기가 유명하여 안성에 주문만 하면 곧바로 유기를 만들어 낸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성 유기(낚그릇)의 명성은 조선시대 반상의 구별 없이 주방 식기로 생활 용구로 조상님들을 위한 제사 음식을 담던 제기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안성 땅은 안성 시내에 있는 유기전이나 가야 유기를 볼 수 있을 만큼 더 이상 안성마춤의 고장이 아니다.

안성은 자연 재해가 없었고 대구 장터, 전주 장터와 더불어 3대 장으로 불릴 만큼 물산의 집결지였던 연고로 물산 문물의 다양함과 풍부한 산세와 지세의 온후함으로 살기 편한 곳이라 했다.

이러한 안성 땅이 서울에서 가까운 ‘제2의 경주’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아해 할 것이다. 안성에 무엇이 있기에 제2의 경주라고 할까? 불국사나 석굴암이라도 있단 말인가? 안성 땅에는 경주 못지않게 많은 미륵불상과 석불들이 있으며 유명하지는 않지만 오래된 절집이나 절터들이 많이 흔해 있다.

광혜원에서 안성으로 가는 옛길 중고개 아래 산적동 개천에는 길이 약 6m, 폭 1m의 찌그리진 원통처럼 못생긴 돌다리 하나가 있다. 마을 사람들은 예부터 이 다리를 유다리라 불렀다. 지금처럼 도로가 넓어지기 전에



는 인근 지역 사람들이 안성장으로 갈 때 이 다리를 지름길 삼아 다녔다고 한다. 돌다리 덕분에 깊은 계곡을 편하게 건넌으며 해마다 가을걷이를 끝내면 마을에서는 여름 장미에 훼손된 다리를 보수해 또 한 해를 보냈다고 한다.

유다리는 칠장사로 출입하는 길에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지금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다리 옆에는 7세기 중엽 신라 자장율사가 창건했다는 칠장사가 있다. 칠장사는 칠현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넓직한 절 마당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어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느낌을 준다. 11세기경 혜소국사가 7명의 악인을 제도하여 모두 도를 깨달았다는 고사에 따라 산 이름을 칠현산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칠현인이 오래 머물렀다 하여 칠장사로 명하였다. 공예가 10세까지 칠장사에서 유년기를 보내면서 활 연습을 했다는 활터가 남아 있으며, 드라마 여인천하에 나왔던 갯바치 스님과 제자 임꺽정 이야기의 발원지로도 유명하다. 칠이 벗겨져 고목의 투박한 빛깔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대웅전의 오래된 기둥과 낡은 외벽은 예스러운 멋을 그대로 풍기며 칠장사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이 밖에 혜소국사비, 칠장사 칠당간, 오불회 패불탱 등 국보, 보물급의 문화재를 다



량 보유하고 있어 절이라기보다는 보물 창고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 ●

손광섭

광진건설 회장 청주건설박물관장



장승백이다리